

이 보도자료는 2022. 6. 26. 09:00에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  
PROSECUTION SERVICE

## 대구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인권보호관 우남준

전화 053-740-4352 / 팩스 0502-193-5453

## 보도자료

2022. 6. 26.(일)

### 제목

## '22년 상반기 마약 밀수 사범 집중 수사 결과

- 총 8명 구속, 도매가 18억 원 상당 마약 압수 -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정보(제11조 제2항 제2호)

-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(부장검사 박혜영)는 '22. 1. ~ '22. 6. 약 6개월 간 마약 밀수 사범을 집중 수사하여,
  -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5kg을 국내에 밀반입한 사건 등 총 8건의 마약류 밀반입 관련 사건을 인지 수사하여 8명의 마약사범을 입건, 전원 구속하였음
  - 약 26만 명이 동시투약 할 수 있는 필로폰 약 8kg, 엑스터시<sup>1)</sup> 3,015정, 야바<sup>2)</sup> 40,138정, 케타민<sup>3)</sup> 약1kg 등 도매가 18억 원 상당 압수
  - 특히 대검찰청에 파견된 태국 마약청(ONCB) 수사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태국 현지에서 마약류를 발송한 공범을 적발하기도 하였음
- 이번 수사를 통하여, 최근 코로나 사태에 따라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와 함께 대구,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동남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노동자들 사이에 마약류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실상을 재차 확인하였음
- 대구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국내 마약 밀수, 유통 사범뿐만 아니라 해외 공범까지 적극 수사하여 마약의 국내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음

1) 파티용 마약으로 사용되며 '포용 마약'이라고 불리는 등 스킨십 욕구 및 자신감을 증진 시키는 합성마약의 일종  
 2) 주로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이 선호하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  
 3) 소위 '강간용 마약'이라고 불리며 한국에서는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의 일종

# 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마약류 발송국	공소사실 요지	처분
1	A(38세) 태국, 불법체류	태국	<b>【필로폰 5kg 밀수 등】</b> · A, B, C는 공모하여 '22. 5. 7.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하여 태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대나무 향아리 형태로 통 안에 은닉하여 밀수 · A, B, C는 '22. 4. ~ 5. 야바 180정 상당 매매, 매매알선 등 ※ 대검찰청에 파견된 태국 마약청(ONCB) 수사관과의 신속한 공조수사로 초기 단계에 공범 적발	<b>전원 구속기소</b> ('22. 5. 31.)
2	B(46세) 태국, 불법체류			
3	C(36세) 태국, 불법체류			
4	D(28세) 베트남	독일	<b>【엑스터시 2,512정, 케타민 98.37g 밀수】</b> · D, E는 '22. 1. 22.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베트남 거주 공범과 공모하여 독일에서 엑스터시 2,512정 및 케타민 98.37g을 화장품 통 안에 은닉하여 밀수	<b>전원 구속기소</b> ('22. 2. 25.)  ※ 1심 선고 D : 징역 5년 E : 징역 1년 6월 ('22. 5. 20.)
5	E(22세) 베트남, 불법체류			
6	F(22세) 태국, 불법체류	라오스	<b>【필로폰 2kg 밀수】</b> · '22. 3. 26.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하여 태국 거주 공범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kg을 실타래 안에 숨기고 화장품 통 안에 은닉하여 밀수	<b>구속기소</b> ('22. 4. 21.) ※ 1심 선고 징역 4년 ('22. 6. 10.)
7	G(26세) 태국	태국	<b>【야바 20,176정 밀수】</b> · '22. 4. 17.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하여 태국 거주 공범과 공모하여 야바 약 2만 정(20,176정)을 식료품 봉지 안에 은닉하여 밀수	<b>구속기소</b> ('22. 5. 12.)
8	H(40세) 태국, 불법체류	태국	<b>【야바 19,968정 밀수】</b> · '22. 5. 22.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하여 야바 약 2만 정(19,968정)을 불상(佛像) 안에 은닉하여 밀수	<b>구속기소</b> ('22. 6. 22.)

## II

## 수사결과

- 대구지검은 관세청, 태국마약청(ONCB, Office of the Narcotics Control Board)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
- 동시에 필로폰 8kg 등 도매가 18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하였고, 나아가 국내에서 마약 밀수를 도와주는 공범까지 수사범위를 넓혔음
- 또한 본건 단속 과정에서 경북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동남아시아 불법체류 노동자들 사이에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마약을 밀수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는 범행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범죄유형을 분석하고, 관련 범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임☑



실타래와 함께 은닉된 필로폰



실타래 안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



엑스터시



엑스터시를 감싸고 있던 비닐 조각



엑스터시를 감싸고 있던 알루미늄 호일 조각



엑스터시가 은닉되어 있던 화장품 통